

GS칼텍스 에너지학개론 제 16강. 국제 석유시장의 변화

[목차]

1. 2차 산업혁명 동력원으로서의 석유의 등장
2. 메이저의 활약
3. 오일쇼크의 영향
4. 셰일가스와 미국의 부상

2차 산업혁명 동력원으로서의 석유의 등장

1차 산업혁명의 동력원이 석탄이었다면, 석유는 2차 산업혁명의 주요 동력원으로서 등장하였다.

1차 산업혁명의 끝 무렵이던 1860년대 오하이오 주에서 시작한 존 록펠러(John D. Rockefeller)의 석유중개 사업은 1870년에 스탠더드 오일을 설립하면서 전국적인 규모로 성장하였다. 당시 펜실베이니아에서 설립된 석유거래시장이 뉴욕을 포함한 여러 지역으로 확장되면서 현물(spot)과 선물(futures) 거래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 대립이 가시화되는 시기였다. 이때에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첨예한 갈등을 완화시킨 데에는 석유의 역할이 컸었다. 중산층을 겨냥한 헨리 포드의 자동차 대량생산-대량소비가 이루어지기 위해 석유공급이 필수적이었다는 사실을 유념할 때, 에너지가 경제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대한지를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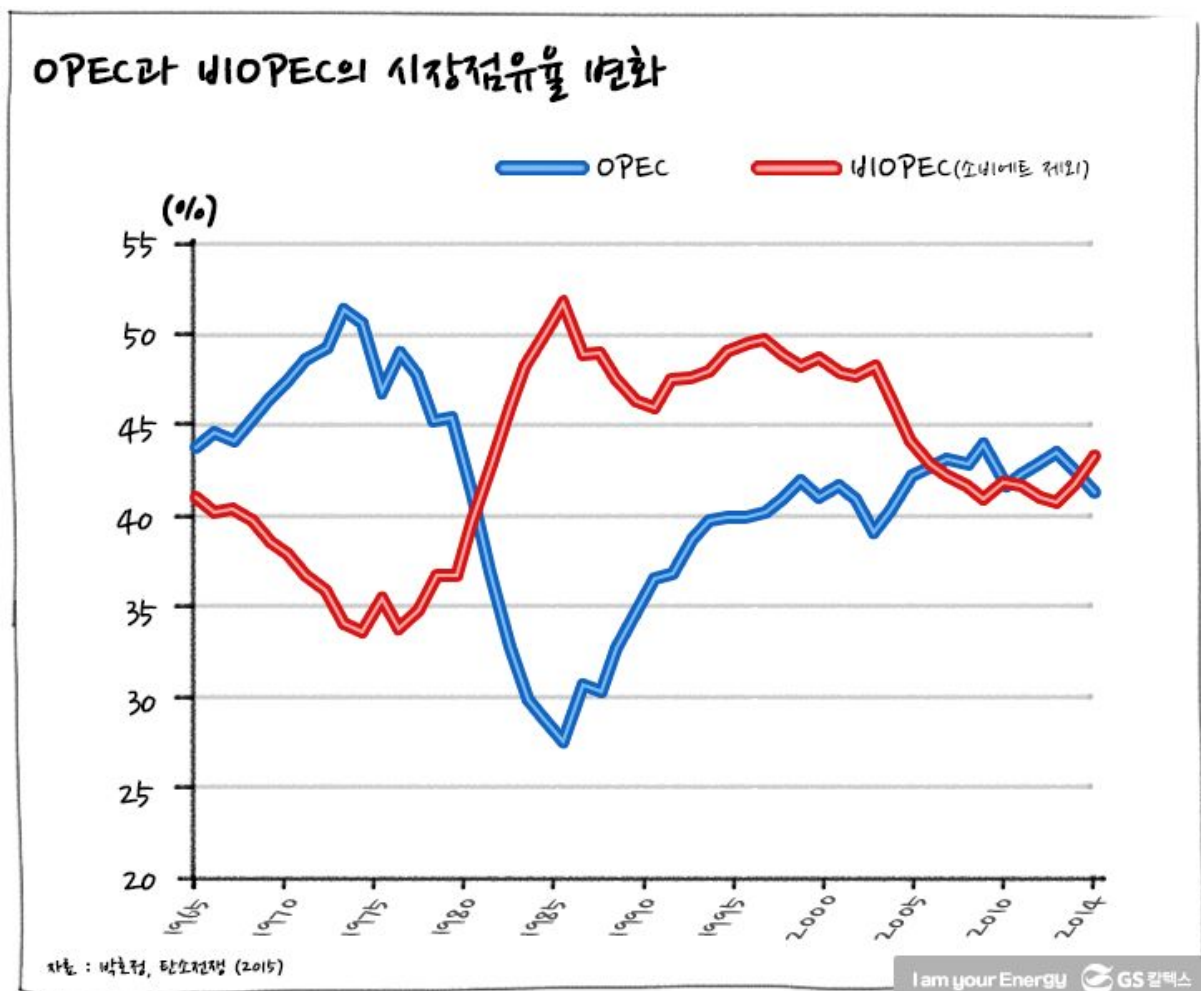
메이저의 활약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른 바 ‘일곱자매(Seven Sisters)’라고 불리는 석유 메이저가 국제 석유시장을 제패하였다. 스탠다드 오일 뉴욕(모빌), 앵글로 페르시안 오일(BP), 로열더치셀, 스탠다드오일캘리포니아(쉐브론), 걸프오일, 텍사코, 스탠다드오일뉴저지(Esso)의 일곱자매는 1949년 무렵 전세계 석유거래의 88%를 담당하는 유정을 소유하였다. 이들은 석유개발 상류부터 판매 하류까지의 수직통합, 지속적인 기술개발, 그리고 석유자원 보유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하여 진입장벽을 형성하였고, 이를 통해 한동안 국제 석유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일곱자매의 앵글로 아메리카 계열 중심의 과점적인 국제석유산업에 자원민족주의의 영향이 불기 시작하면서 1960년대부터 약 십년 사이에 50여개의 국영 석유기업과 300여개의 독립계 E&P가 가세하게 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전 세계 석유소비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는데 1960년의 21.4백만 배럴에서 1970년의 46백만 배럴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 [\[관련영상\] 석유왕 록펠러와 현대 석유산업의 시작 >> 더보기](#)

오일쇼크의 영향

이처럼 석유소비가 급등한 가운데 1970년대는 [오일쇼크](#)를 맞이하게 되었다. 1차 오일쇼크는 OPEC의 석유수출 제한조치로 발발하였는데, 1973년 9월 기준으로 배럴 당 3달러였던 국제유가가 같은 해 12월에 11달러로까지 급등하였다. 2차 오일쇼크는 1979년에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해 국제유가는 배럴 당 13달러에서 34달러로 치솟았다. 오일쇼크는 석유시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오일쇼크 이전에만 하더라도 OPEC과 비OPEC의 석유시장의 점유율이 6:4였지만, 1980년 무렵을 기점으로 약 3:7로 반전되었다. 이는 오일쇼크를 계기로 중동산 석유의 공급의존도를 줄이고자 하는 비OPEC의 노력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브렌트유 생산도 이루어졌다. 천연가스의 개발과 원자력 발전의 확대 역시 석유시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오일쇼크를 계기로 에너지원이 이처럼 다변화됨으로써 국제유가는 한동안 배럴당 20~30달러 대에 계속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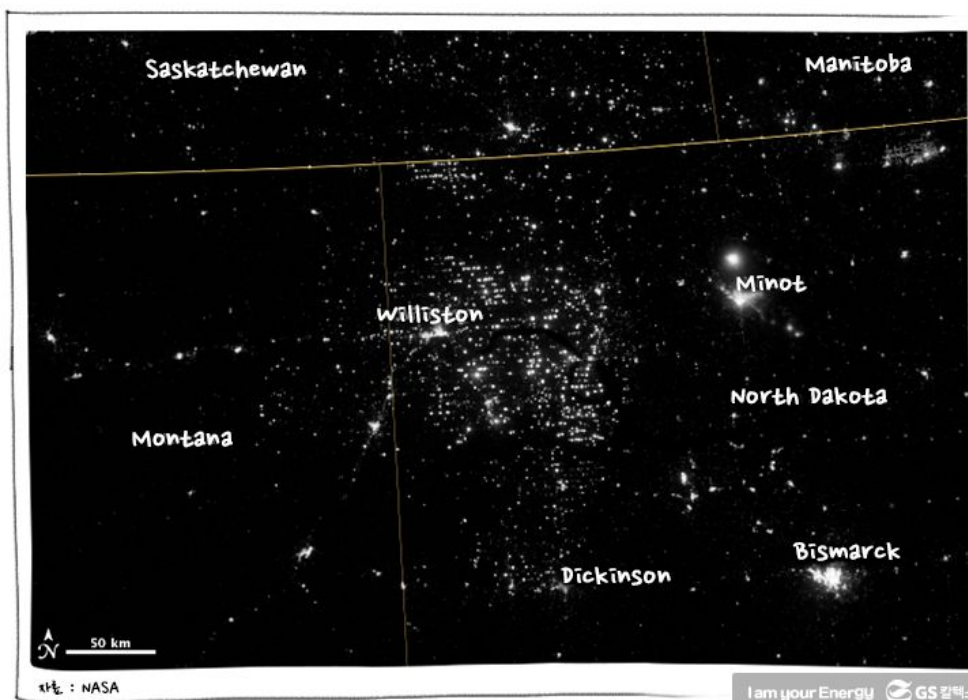


- [\[관련영상\] 우리나라가 미국산 원유를 수입하는 이유 >> 더보기](#)

셰일가스와 미국의 부상

2000년대 중반에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이상 급상승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첫째, 밀레니엄 전후로 주요국에서 형성된 저금리 기조가 상품시장 투자를 촉발하여 국제유가의 상승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에너지 수요 증대를 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페트로차이나, 브라질의 페트로브라스의 국영석유회사는 지속적인 상류부문 개발을 통해 슈퍼메이저와의 경쟁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독립계 회사 역시 각자의 영역에서 특화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였는데, 예를 들면 **Valero**는 미국, 캐나다, 영국, 카리브해에서 전략적 인수를 통해 세계 최대의 독립석유정제회사로 성장하였다.

2000년대 중반의 고유가는 대체에너지원으로서의 비재래식 석유(또는 비전통 석유, Unconventional Oil)로 우선 오일샌드 개발 붐을 일으켰으며, 이후 수평시추 수압파쇄법의 개발로 미국발 셰일가스 혁명을 촉발시켰다. (아래 위성사진 참조) 201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로 그동안 수십년간 지속되어왔던 WTI, 브렌트유, 두바이유의 국제유가 동조화 현상도 깨어졌다. 미국은 2017년 말 기준으로 일일 석유생산능력이 1천만 배럴을 초과함으로써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상회하는 이른 바 세계최대 산유국이 되었다. (미국 일일석유생산량 그래프 참조)



미국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낮았던 지역인 노스다코타 바켄 지역의 위성 이미지. 셰일가스 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와 가스연소로 밤에도 불이 밝혀져 있다.



함께 보면 더 유익한 에너지학개론 관련글

- [\[관련글\] \[에너지학개론\] 제 9강. 셰일가스의 개발특성과 국제유가 >> 더보기](#)
- [\[관련글\] \[에너지학개론\] 제 10강. 비전통석유자원이란 무엇일까? >> 더보기](#)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박호정 교수

본 콘텐츠는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박호정 교수로부터 기고를 받아 재구성한 것입니다.

본 콘텐츠의 IP/콘텐츠 소유권은 GS칼텍스에 있으며 Reproduction을 제한합니다.



에너지학개론

당신도 이제 에너지 교양인! 석유 관련 상식, 역사, 트렌드, 전망까지 <에너지학개론>에서 살펴보세요!